

“문화재 보수관리 제도 개선 필요”

본사주지協, 긴급회의
‘표적 감사’ 예의 주시

8인 대책위원회 구성
중단과 공동 대응키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감사와 관련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우려를 표했다. 스님들은 지난 18일 팔공총림 동화사 설법전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돈관스님, 은해사 주지) 긴급회의에서 효율적인 문화재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지원제도를 개원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화재 비리 집단의 한 축으로 보고 감사,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마곡사 수덕사 직지사 은해사 등 15개 본사 주지 및 부주지 스님들은 과잉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무원과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스님들은 “경찰, 감사원 등이 전국적으로 문화재 보수 실태 조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려

스러운 점이 있다”며 “특히 사찰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의도에 대해서는 총무원과 함께 모든 교구본사에서 강력히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또 회장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 부회장 백양사 주지 진우스님, 신흥사 주지 우송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 직지사 주지 흥선스님 등 회장단과 총무원 총무부장 종훈스님, 기획실장

일감스님, 재무부장 보경스님, 문화부장 해일스님 등 총 8명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지협의회는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감사와 관련해)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문화재 보수 관리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과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광호 대구·경북지사장

태풍 피해 필리핀에 자비를... 통도사·조계사 ‘온정의 손길’

동짓날 즈음 모금 활동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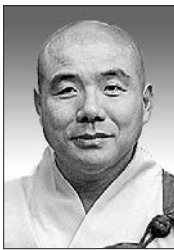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돕기 위한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온정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기부가 이어지면서 12월20일 현재 모금액도 총 2억3769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필리핀 태풍피해 지원과 아프리카 학교 건립에 정성을 보냈다.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은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전달식을 갖고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각각 필리핀 태풍피해 지원에 1000만원, 아프리카 학교 건립에 1000만원씩 사용될 예정이다. 원산스님은 이날 필리핀 구호 기금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아름다운동행이 추진하고 있는 탄자니아 농업기술고등학교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며 기금 1000만원을 추가로 전달해 자비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필리핀 지원과 아프리카 학교 건립을 위해 정성을 내줘 감사드린다”며 “십시일반을 정성을 모아 주는 게 큰 의미가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원산스님
통도사 주지



도문스님
조계사 주지

이에 앞서 17일 서울 조계사도 필리핀 구호 기금 모금을 위해 사용했던 지구 모형의 모금함을 통째로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과 부주지 화림스님이 이날 전달한 성금은 모두 1260만2700원. 조계사는 초대형 태풍 하이옌 발생 이후인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모금을 실시하며 신도들의 정성을 모았다.

조계사는 이번 기금 전달에 이어 동지 때부터 내년 초까지 2차로 필리핀 태풍 재난 구호 기금 모금을 펼쳐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경내에 아프리카 농업 학교 건립 기금을 위한 모금함을 설치해 신도들의 정성을 모을 계획이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비구니 모임 원각도량 스님들이 18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을 방문 아프리카 학교 건립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가운데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왼쪽은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승스님.

아프리카 학교 건립 ‘동참’ ‘원각도량’ 비구니 스님들 아름다운동행에 1000만원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원각도량(회장 임대스님)이 지난 18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건립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원각도량은 지난 2011년 결성 이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으며, 현재 15명의 회원 스님들

이 활동하고 있다. 아프리카 학교 건립 기금 전달을 계기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원각도량은 앞으로 수행과 나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원각도량이 전달한 기금은 회원 스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달식에는 회장 임대스님을 대신해 재범·광현·정관·유곡·대안·혜조스

님 등이 참가했다. 이날 회원 스님들은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으로 모범이 되기 위해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아프리카 학교 건립을 위해 정성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금을 유용하게 잘 쓰겠다”고 말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관리능력 ‘함양’ 운영현황 ‘공유’

정보박물관 관계자 교육

정보박물관 관계자 교육이 진행됐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덕문스님)은 지난 18, 19일 이틀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시청각실 등에서 ‘2013년 정보박물관 관계자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정보박물관들의 운영실태 및 업무현황을 공유하고,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보문화재들의 관리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실무 교육은 최근 박물관 운영의 핵심적인 사업인 교육과 전시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됐다.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구민경 학예연구사가 박물관 교육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불교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정보박물관 관계자 간담회도 열어 정보박물관에 대한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이성수 기자

본·말사 주지 인사 (12월 12일·19일)	
	선혜스님 대구 덕인사
	무진스님 울산 무전암
	해성스님 철곡 승림사
	보광스님 부산 불광사
	적광스님 진주 적광사

조계종 스님 언제 어디서든 동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다

교육원, 각계 전문가 14개 강좌 개방

사이버대학, 스마트폰 강의 등 첨단기기를 통한 교육시스템이 불교계에도 도입돼 ‘스마트한’ 승가 교육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3월 동영상 강의를 스님들에게 개방했다. 2011년부터 준비해 2012년부터 표준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을 위한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실시한 교육원은 교육콘텐츠를 모든 스님에게 개방한 데 이어, 연수교육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스님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동영상 강좌는 입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해 많은 호응을 얻었고, 교육원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동영상 강화를 대폭 강화했다. 현재 동영상 강좌는 14개에 이른다. 세계불교사, 불교문화유산의 이해, 포교방법론, 불교와 사회 등 불교관련 강의 뿐 아니라, 빠알리어, 산스크리트어 등 어학 콘텐츠와 나의 동양고

전 독법, 스님을 위한 경제이야기 등 인문학까지 다양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됐다는 것도 특징이다. 전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스님, 김종욱 동국대 교수, 은해사 기기암 선원장 월암스님을 비롯해 철학자로서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강신주 박사 등도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통해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교수와 소통이 가능한 쌍방향 시스템의 탑재로 동영상 강좌는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원의 스마트 교육은 조계종 디지털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교육원에 연락하면 스마트한 강의를 즐길 수 있다. 교육원 관계자는 “스님들의 요청과 참여도에 따라 다양한 강사와 강의시간, 강의방식으로 강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정관 개정 소위원회 확대

불교방송, 신임 이사

종훈스님·희성정사 선출

조건부 재허가 대책 논의

불교방송 신임 이사에 조계종 총무원장 종훈스님과 전각종 전각대학원장 희성정사가 각각 선출됐다. 또한 불교방송국과 재단사무국 2014년도 예산이 199억 6000만원(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 25억 원(전년대비 7억 원 증액)으로 각각 확정됐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 가든호텔 백합실에서 이사장 종하스님 등 이사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5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임 이사로 선출된 종훈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추천)은 장적스님과 무의정사의 후임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이사회에서 이월된 소위원회의 법인 정관 개정안 등은 결산 이사회 개최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

위원회는 구상진 이사를 위원장으로 종훈스님, 정념스님, 미산스님, 희성정사, 범등정사, 손준석 이사 등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려 조계종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불교방송이 지난 9일 방송 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 의결을 받는데 따른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방통위는 △기부금 중심의 재원 안정화에 따른 이행실적 매년 보고 △퇴직직립금 충당금 미설정 위반 해소에 따른 이행실적 매년 보고 △종교방송으로 비영리 법인운영 준수 등의 조건을 내걸고 내년 1월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은 “라디오방송 광고비 축소, TV 개국 등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라며 “앞으로 교계, 불교진흥원 후원 확충, 후원회 활성화, 경비절감을 통한 긴축운영, 공익성 제고를 위한 불교문화 수익사업 확대 등을 통해 방통위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2014년도

범어사울학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

범어사에서는 부처님의 계율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여 조계종단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다변화 하는 현실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윤리적 기준을 제시할 전통 율학과 시대정신을 아우르는 종헌중법에 정통한 청정 율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불기2558(2014)학년도 금정총림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모집인원	비구 0명
응시자격	기본교육기관 졸업 및 비구계수계자
제출서류	입학원서(본대학원 소정양식) 1부 수행이력서 1부 승려증 사본 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1부 건강진단서(보건소제외) 1부 반명함판 사진(3×4) 3매 자필추천서(은사, 강주스님 등)

접수기간	~2014년 2월 10일(월) 까지
원서교부	범어사 중무소, 범어사 홈페이지(www.beomeo.kr)
원서접수	범어사 중무소(교무담당)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전형일시	추후 개별 연락
문 의	051)508-3122 (범어사중무소 교무담당) 051)508-2171 (범어사율학승가대학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금정총림 범어사율학승가대학원 원장 수진